

주제(Thesis):

- 깨달음(gnosis)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천국, 하느님, 참 나를 발견함 -> 자유와 해방 -> 새 생명으로 태어남

도마복음 풀이(1 절 - 6 절):

1.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 해석의 중요성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찾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 종교적 진술의 중층적 의미 - 문자적/심적/영적/신비적 의미(영지주의 가르침) ->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후 3:6) -> 신성의 발견으로 새 생명을 찾게 됨
- 장자 - 들음의 4 단계 -> 귀/마음/기/도'와 하나되는 단계 -> 심재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라.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기는 텅비어서 무엇이든 받아들여 기다린다. 도는 오로지 빈곳에만 있는 것. 이렇게 비움이 곧 심재이나라.>
-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 네 번 나옴 / 깨달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 -> 부활
- '그가' 말하였다 - 예수인지 도마인지 확실하지 않음

2. 찾으려 하면 혼란해 하고 - 발견의 충격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찾으려 하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 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 발견의 충격 - '흔들리는 토대' -> 진리는 본래 불편하기 마련(inconvenient truth) - disturbing the comforted, comforting the disturbed -> 깊은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 -> 이 경지에 이를 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음 =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 -> 깨달음과 놀라움 = '천상천하유아독존'의 경지 ->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어 버전에는 편히 쉬게 된다고 되어있다)
- 통상의 표피적 이해와 완전히 다른 '예수' '구원관' '신관' '종말관' -> 혼란스러움 ->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임 -> 놀라움과 자유를 맛보게 되리라는 이야기

3. a 천국이 하늘에 있으면 새들이 - 천국의 현주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 영토가 아니라 '주권' ->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임재하심
- 하느님의 나라가 내안에도 그리고 내 이웃안에도 있다는 뜻 -> 하느님의 주권이 한 쪽에만 국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 '천국 비밀'의 일부
- '천국/하늘나라' - 장소로서의 하늘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 하느님의 힘, 원리, 현존으로 이해해야
- 종교 지도자들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우주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 -> 전체적 안목이 있어야 함(마 13:52) vs. 그렇지 않다면 '장님이 장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

3. b 네 자신을 알아 - 풍요로움과 가난의 지렛대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자체입니다.”

-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음 = 이 하느님은 내 속 가장 깊은 차원의 참 나 -> 깨달음 = '진주' ->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vs. 노심초사 -> 율법주의적 삶; 허세의 삶 -> 궁핍하고 비참한 삶

4. 늙은이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우고 - 영적 서열의 전도

“...늙은이도 ... 갓나아기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가 물에보기를 ... 먼저 된 사람들중... 나중 될 것이고, 모두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생명의 근원에 대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참 삶 늘 얻을 수 있음
- 누구나 깨달음으로 다 같이 새 새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 구별이 없이 다 하나이다
- 갓난아이 -> 남녀, 선악, 미추, 시비를 넘어선 합일의 사람

5.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 발견의 선후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감추어졌던 것이 ...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감추어졌던 것 = 천국의 비밀 -> 체험-깨달아-알기 -> 모든 것이 드러날 것 -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
- ‘묻혔다가 올라온다’ - Nag Hammadi 사본에는 없고 그리스어 사본에 있는 표현 /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음 -> 참 자아가 재발견되고 되살아남
- 도덕경 ‘어머니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 ‘도’를 알면 모든 현상을 알 수 있음 = 사물에 관통하고 있는 ‘이’를 아는 것(주자)

6. 금식을 할까요? - 우선순위의 확인

“우리가 금식을 ... 어떻게 기도해야... 구제해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기...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숨김도 없습니다.”

- 예수의 대답은 질문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임 - (참고) 이 네 가지 질문의 대답은 14 절에 나옴
- 형식적인 종교행위 보다 더 우선적인 것 -> 거짓없이 솔직하게 - 내면, 양심, 참 나의 소리 즉 내 안의 하느님의 소리에 성실하게 반응
- 공자 - 이런 솔직한 태도를 ‘직’(straightforwardness)이라 함 + ‘예’로 조절하느 사람 = ‘인’의 사람 -> 사람됨을 갖춘 사람 =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
- 자신이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 -> 보상 받기 위함이나 형벌이 두려워 하는 것 vs. 감추어 봐야 쓸데없고 - 모든 것이 드러남을 알기에 하는 것
- 내 행동의 결과는 ‘오늘’ 내 삶에 - 긍정적으로 든 부정적인 것으로 든 - 그대로 드러난다

생각해 보기:

- 저자는 2 절 풀이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사후에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는 걱정에서도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방인가 아니면 사후세계의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논쟁 거리인가?
- 또한 2 절의 부분 중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라는데 나는 무엇이 제일 ‘혼란’스러웠는가?